

WEA, 세계 교계에 파키스탄 구호 주력 촉구



“서서히 진행되는 쓰나미... 우리가 그들의 편에 서야”

8월 초부터 쏟아진 폭우로 홍수 피해가 심각한 파키스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세계 복음주의 대표 단체가 촉구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최근 발생한 80년만의 최악의 홍수로 국토 5분의 1이 물에 잠겼으며, 2천만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재산상 손실을 겪는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파키스탄 수재민들을 위한 4억6천만 달러의 긴급기금을 책정했으며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약 70%가 모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유엔은 파키스탄의 온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2차 기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농경지 침수로 경제적으로 농염에 의존해 온 대다수 국민들의 생존이 힘겨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

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세계복음연맹(WEA)도 전 세계 128개국 회원 단체들에 보낸 긴급호소문을 통해서, 홍수로 고통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대감을 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프 터니클리프 WEA 대표는 호소문에서 파키스탄의 홍수를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쓰나미”로 부르며 그 심각성을 강조하고, “수백수천만 파키스탄인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이들에게 세계 기독교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응답이 필요로 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으로 관대한 지원은 물론 기도 또한 그들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세계 교인들에게 당부했다.

또 비록 소수지만 파키스탄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교인들에 대한 우려도 표시하며,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찾고 있을 그들의 편에 우리가 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든 쇼웰-로저스 WEA 부대표는 “여러분의 지원이 보태진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모금과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손현정 기자)



미주성서화운동본부와 조슈아 크루세이드 관계자들이 로스앤젤레스 십자가 대행진에 대해 설명한 후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지재일 기자

“미국의 영적 부흥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약8개월전 매월 둘째 주 토요일 할리우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작된 조슈아 크루세이드(Joshua Crusade)의 십자가 대행진이 오는 9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할리우드 코닥극장(Kodak Theater, Hollywood)과 LA 한인타운에서 2010년 로스앤젤레스 십자가 대행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십자가 대행진을 주최하는 미주성서화운동본부(대표회장 박희민 목사)와 조슈아 크루세이드(대표회장 송정명 목사)는 8월 31일 JJ 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인사말을 전한 박희민 목사는 “십자가 대행진을 통해 LA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성서화의 열정을 일으켜 미주 전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터 김 목사(조슈아 크루세이드 훈련원장)는 “1906년 4월 9일 LA 아주사 거리에 있는 작은 건물에서 시작된 성령 강림을 필두로 전국

으로 확산됐던 영적 각성운동이 동성애와 성경공부 금지 등의 반기독교 문화가 만연한 미국의 영적 부흥을 기대하며 십자가 대행진을 개최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위해 유럽에서 건너온 청교도들과 그들

■ 22일부터 2010년 로스앤젤레스 십자가 대행진

의 후손들이 성경과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 세워진 나라가 현재는 건국의 이념이 흐려져 결정적으로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집권 당시, 연방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성경공부와 기도가 금지됐으며 미국내 기독교는 더욱 쇠퇴하는 실정이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건물내 십자가 등 기독교 상징물들이 철거되고 많은 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반성서적인 가치관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복음주의자들의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피터 김 목사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개개인의 회개를 통해 영적 각성하여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십자가 대행진은 뉴욕과

와 함께 십자가 대행진에 대한 비전을 나누어 이번 행사가 개최되도록 뜻을 모은 것이다. 뉴욕 십자가 대행진은 9월 14일(화)부터 15일(수)까지 맨하탄 타임스퀘어 중심가와 퀸즈 한인타운에서 십자가 대행진을 하게 되며, 워싱턴은 16일(목) 올네이션스교회에서 글로리아 찬양팀과 함께 찬양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LA에서는 9월 20일(월) 미주평안교회(송정명 목사), 21일(화) LA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 22일(수) 세계대교회(이상남 목사)에서 오후7시 30분 찬양집회를 개최하며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2시까지 할리우드 코닥극장에서, 23일(목) 오전 10시 30분에는 한인타운에서 십자가 대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213-435-1213

(지재일 기자)

다음주신문 쉽니다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써니사이드교회 입당 감사예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구입하여 입당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조인수 목사와 성도 일동)

일 시: 2010년 9월 19일 (주일) 오후3시 30분
장 소: 써니사이드교회 워십홀
주 소: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전 화: ☎ 213-389-0691
주차안내: 올림픽과 엘덴의 구 한국자동차 파킹랏 (셔틀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작은교회 돕기에 남가주 교협과 한인사회 하나돼



남가주 교협 임원진들과 LA총영사, 한인회장 등 인사들이 작은교회 돕기에 협력했다. ©지재일 기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지영덕 목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가주 작은교회 교역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마련 5일 식당을 9월 3일(금)까지 한식당 다호갈비에서 개최하고 있다.

남가주 교협은 5일 식당이 진행되기 전 10달러 식권을 한인교회와 단체, 독지가들에게 판매해 총5만불의 수익금으로 50개 작은교회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영덕 목사 "작은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영성이 깊은 이들이 많이 있는데 목회 여건이 어려워 곤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오렌지카운티의 한 개척교회 사모가 힘든 목회 여건을 감당하다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최근

접했다. 앞으로 교협에서 남가주 50개 교회를 선정해 500불씩 재정 지원을 하고 50개 교회 강단교류, 50개 교회 자비량으로 참여하는 성가대 찬양으로 작은교회 예배를 섬기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작은교회 돕기에 남가주 교협이 앞장서자 각 중대형교회뿐 아니라 LA총영사관과 한인회, 미주한인재단 등에서도 후원금을 전달하고 작은교회 돕기에 한 마음을 모으고 있다.

△김재수 총영사: 남가주 교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작은교회 지원을 통해 앞으로 봉사하고 화합하는 일들이 한인사회에도 많이 일어나길 바란다.

△LA 한인회 스칼렛 회장: 작은교회를 위한 유익한 일들을 남가주 교협에서 자주 진행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귀한 일을 위해 한인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돕겠다.

△미주한인재단 LA 박상원 회장: 최근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급격히 세계경제 2위 국가로 발전한 중국도 다민족연합

국가로서 하나로 화합하며 사는 모습을 봤는데, 남가주 교계에서도 큰 교회와 작은교회가 함께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섬김으로 항상 성장발전하길 바란다.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한 그루의 튼튼한 나무에는 잔잔한 뿌리가 수없이 뻗어 있는데 큰 교회 작은교회 함께 유기적으로 서로 도우며 은혜 안에 하나되어 나갈 때 더욱 발전하리라 믿는다. 남가주 작은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작은교회 돕기 행사준비위원장 백지영 목사: 작은교회 돕기 위한 5일 식당 티켓을 팔면서 큰 교회들이 너무나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동참해 감사하다며 교계뿐 아니라 한인사회에도 작은교회 돕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

(지재일 기자)

나중이더잘되는 '사랑의빛선교교회'

2대 담임 최혁 목사 취임...김재문 목사는 원로 추대

사랑의빛선교교회를 개척해 17년을 목회에 전념한 김재문 목사가 29일(주일)로써 은퇴를 맞이했다. 목회는 그만두지만 사역의 제 2막을 연 김재문 목사와 새로

운 담임으로 취임한 최혁 목사의 목회가 시작됐다.

사랑의빛선교교회는 8월 29일 김재문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와 2대 담임 최혁 목사의 취임감사에

배를 분교회당에서 드렸다. 예배당 입구까지 가득매운 성도들은 원로목사가 되어 더 잘되고 새로운 담임목사가 취임하여 더 잘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구본철 목사(갈보리은혜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의 설교와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의 축사,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의 축도로 진행됐으며, 특별히 한국의 박종순 목사(총신교회)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왔다.

한기홍 목사(본문: 딤후 4:1-8)는 "나중이 더 잘되어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



(좌)사랑의빛선교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된 김재문 목사와 사모와 (우)사랑의빛선교교회 담임으로 취임하게 된 최혁 목사와 사모. ©지재일 기자

길 바란다"며 "복음을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설교했다. 교회를 대표해 원로목사 추대사를 전한 이방길 장로는 "김재

문 목사님을 마음과 뜻을 모아 기쁜 마음으로 원로목사로 추대한다"며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무릎 꿇았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전했다. 예배 후에는 전 성도들이 음식을 나누며 2부 축하 및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재문 원로 목사는 거취를 한국으로 옮길 예정이다.

(박상미 기자)

ORT 대학에서

연방 및 주정부 지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 1. 기초영어증, 고급 8개월 코스, 컴퓨터 학비 전액 무료
- 2. 다양한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 3. 아카운팅 대학 졸업장, 자격증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대학 졸업장, 자격증
- 4. 약사 보조직 / 의사 보조직 / 컴퓨터 그래픽 & 데스크탑 퍼블리싱
- 5. 유학생 1-20 발행 (소셜번호, 워킹퍼밋 도와 드림)
- 6. 졸업후 직업 추천 해드림 (유테계 ORT대학)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 영주권자 이상, 저소득층 유자격자

대표전화 (323)556-5386
Cell. (213)434-8128

버스표
전액 보조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법,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www.rosehills.com

로즈힐 공원묘지

100여년 역사의 정성스런 관리서비스와 가깝고 편리한 로즈힐공원묘지를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세요!

비교해 보면 가장 저렴한 가격!

월 \$39부터!

- ▶ LA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풍수지리적 관점의 최고 명당
- ▶ 세계 최대 규모 단일 공원묘지 ▶ 한인 장례매너의 친절한 상담

묘지에서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Rose Hills Mortuary Whittier #FD970

본사 (한국어 직통)
1-888-848-8707
Rose Hills Mortuary (#FD970)
3888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

세리토스점 [한국어 문의]
1-877-767-8850
Rose Hills Arrangement Center (#FD1849)
11900 S. Street, #119 Cerritos, CA 90703

브레아점 [Brea]
(562)809-7027
Rose Hills Brea (#FD2007)
835 S. Brea Blvd., Brea, Ca 92821

장의 & 장례보험 문의
(562)201-7097

Morning Glory Lawn. \$2,900 plus one time endowment fee. 10% down payment. Balance financed at 3.9% (this interest rate is good for 2nd Quarter, April through June 2010). Automatic bank payment required. 84 monthly payments

■ 아주관광 박평식 대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

“포기를 해도 수십 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돌봐주신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저를 통해 보이실 겁니다. 아니, 그분을 위해서라도 전 반드시 그리할 겁니다.”

아주관광 박평식 대표이다. 억울하게 휘말린 국제정 조사와 소송, 믿었던 동료의 배신...그에게 고난과 시련은 한꺼번에 밀려왔다. 옆친 데 났친 격으로 국가 경제사정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경쟁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회사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아주관광은 미주 한인관광업계 선두주자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시절 업계점유율 85%를 차지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1984년 시작된 사업은 LA 올림픽으로 특수를 누리던 1986년부터 한국에서 일어난 해외여행 자유화 바람으로 관광객 수요가 급증했다. 그런 호황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넘어 2000년 초반까지 이어졌다. “당시 번 돈으로 지금까지 버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아주관광 박평식 대표

이제 와서 보니 그 속에는 거짓 소문과 조작된 증거 음해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년 만에 세무조사는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가이드는 회사로부터 (원래 월급이 없지만) 받은 임금을 받아내겠다는 심사로 소송을 걸어왔고 억울했

중이다. “재판장에 들어가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정말 모든 맥이 빠집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견뎌내며 증언을 하니까요. 그렇게 모든 힘이 빠지고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이 겉손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지치고

가 너를 군세계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1:11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를 입을 것 같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41:12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 같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41:13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전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절실하고 간절해지니 새벽에 저절로 일어나 지더군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을 하다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알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10년에 가까운 긴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냈다. 처음부터 고난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지금 그의 간증은 “고난은 축복

“올 여름 마지막 연휴 특별한 추억을”

아주관광 노동절 특별여행상품 출시 할인혜택 풍성

올 여름 마지막 연휴인 노동절 황금연휴를 겨냥한 특별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아주관광(대표 박평식)은 이번 연휴를 대비해 자녀들을 위한 ‘절경! 칼스배드’ 상품과, 미처 휴가를 다녀오지 못한 연인들을 위한 ‘폼격! 기차여행’을 준비했다.

지하 750피트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세계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종유석 동굴을 관람하고 신비로운 하얀 모래사막과 더불어 유명 서부극 ‘OK목장’의 결투 촬영지인 톱스타 운과 수백 마리 박쥐의 숨

막히는 비상을 볼 수 있는 ‘절경! 칼스배드’는 여름방학의 끝을 아쉬워하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체험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폼격! 기차여행’은 환상적인 태평양 해변기차여행과 역사적인 건축물 허스트 캐슬 주립공원을 관람하는 기존의 기차여행을 업그레이드했다. 추마시 원주민의 본거지인 예술의 도시 ‘샌 루이스 오비스포’까지 엠 트랙(AMTRACK)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독립된 돌만의 공간에 머물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당객차 안에서 느긋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객실에는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며 아주관광은 노동절 연휴에 한해 10%를 특별 할인해 준다. (박삼미 기자)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오한 편집국장 : 지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고난의 끝에서 ‘축복’임을 확신하다

정도”로 사업은 변장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 정부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게 됐다. 여행사에서 일하던 가이드가 집을 사기 위해 아주관광에서 월급을 받은 것처럼 위조해 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받았다가 적발된 것이 발단이었다. 원래 가이드는 여행을 판매한 상담과 팀에서 수입이 발생하며 세금신고도 개인이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은행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친 가이드가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아주관광에 더 많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국제정(IRS)에 고발한 것이다. 금융사기범이 탈세혐의가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원으로 둔갑한 시점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국제청과 가이드 간의 모종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관광에 100만 불의 세금을 매기면 거기서 5%를 떼어 주겠다는 식의...

지만 만만치 않은 소송비용과 시간의 감안해 결국 합의했다. 탈세한 회사로 낙인이 찍혀 억측과 허위 소문이 날대로 난 뒤였던 당시 오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또한 그 사이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직원이 중요한 고객정보를 쟁겨 경쟁업체로 뛰어들어가는 일도 발생했다.

“그 긴 시간 세무조사와 소송으로 이리 불려 다니고 저리 불려 다니고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까? 믿었던 직원은 배신을 하고 잘못된 소문으로 손님은 다 떨어져 나가고 경제사정은 나빠지는데 상대적으로 경쟁업체들은 강세를 보이고 회사가 망하거나 내가 죽거나 미국을 떠나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버텨왔는지 저도 알 수 없을 정도이지요.”

그 틈을 타 한 두건 이상의 소송이 연이어 걸려 들어왔고 진행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세밀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고용주를 상대로 한 고용인 소송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나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미국의 노동법이다. 그런데 아주관광의 승소판결이 나면서 아주관광 측의 변호인도 놀라고 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누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느냐’고 물을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재판이 워낙 아슬아슬했고 위기의 순간도 많았지만 죽이지 않고 살고 살리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새벽마다 일어나 묵상하는 말씀이 있다. 이사야서 41장.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

의 통로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신원의 한낱, 회복의 한 날을 주실 것이라는 것도 확신하고 있다.

“이제 명예를 회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비취웁니다. 단지 아주관광과 제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그분의 자녀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저를 통해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주관광은 최근 8가와 웨스턴의 로데오갤러리아 몰 내에 확장점 오픈을 했다.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줌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해 관광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관광산업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결국 성실과 정직이다. “바른 길을 열심히 가려고 노력하면 돈과 명예는 따라오는 축복일 것입니다.”

(박삼미 기자)

제2회 KODIM 이민목회자 서부지역 컨퍼런스 2010 2010.10.18(월)-20(수) 2:00 PM 주제: 이민교회 세우기, "또 교회 세우기?" 장 소: 선한목자장로교회 (Korea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1816 S. Desire Avenue, Rowland Heights, California 91748 (L.A. 근교) Tel: (626) 965-3443 http://sunhanchurch.com 대 상: 이민교회에서 전임(Full-Time)으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부교역자도 해당됨) 접 수: 선착순 50명 (8.31일까지) (www.kodim.us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등록) 접수시, pay to "KODIM" check, 최근 주보1장,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등 록 비: \$100.00 (숙박을 위한 호텔이 필요한 경우, 2인1실 2박에 \$50추가하여 \$150를 보내주세요) 문의 및 접수: 늘푸른선교교회 (구경모 목사, Tel: 714-743-3402) Mission Community Church (Kodim)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주 강사: 임형천 목사 (나성영학교) 주 강사: 박광철 목사 (조이헬로교회) 주 강사: 고대형 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분야별 주제 및 강사: "이민교회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창조영성" - 오정택 목사 (L.A.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 "이민교회의 차세대 목회전략" - 김성찬 목사 (버팔로 새소망장로교회) "인터넷을 통한 한인교회의 네트워크 선교 전략" - 김동욱 목사 (덴버 한인교회) "이민교회 셋팅에서의 효과적인 전도전략" - 최성은 목사 (내쉬빌 다리놓는교회) "이민교회와 선교에 대한 성서 & 신학적 접근" - 김신일 목사 (달라스 연합교회) "이민교회의 차세대 목회전략" - 김성찬 목사 (버팔로 새소망장로교회) "인터넷을 통한 한인교회의 네트워크 선교 전략" - 김동욱 목사 (덴버 한인교회) "이민교회와 이민목회를 위한 삼위일체론적 접근" - 구경모 목사 (L.A. 늘푸른선교교회) 주 최: 코디(KODIM, KOREAN DIASPORA MINISTRY, WWW.KODIM.US) - 멘토 그룹: 한기홍 목사, 정인수 목사, 박광철 목사, 고대형 목사 - 코디(전문위원): 오정택 목사, 최성은 목사, 권석균 목사, 구경모 목사, 김성찬 목사, 김신일 목사, 신현철 목사, 박연담 목사, 김동욱 목사

[새벽강단 9] 세계등대교회 새벽예배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교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

비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이방여인을 취했다는 것이 흠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종들의 연약한 모습도 나옵니다. 엘리야는 로텐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을까 하노라 면서 탄식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한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나 베

개서는 불치의 분동병을 치유하는 기적 같은 역사로 응답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감거나 오늘날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나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9살 때 뇌막염을 앓

세계등대교회 '아바! 아버지!' 기도 특강 이어가

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부르짖는 기도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세계등대교회(담임 이상남 목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부르짖는 기도와 응답을 공부한다. 예배 후에는 특강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뜨겁게 진행된다.

〈본문: 민 12: 1절~16절〉 신앙생활의 생명은 기도 에 있고, 기도생활의 생명은 응답에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어떻게 부르짖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 동안은 창세기와 출애굽에서 나온 부르짖는 기도를 보았고 오늘은 민수기에 나온 기도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유일하게 나오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된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본문 1절에 나오듯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했습니다. 이 사람은 후처입니다. 모세에게는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지만 오래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광야에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모세가 첩을 취했다고도 하지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했다면 아론이나 미리암이

드로 그 밖에 성경의 인물들이 위대하게 들어 쓰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합니다. 질투 때문입니다. 교만했습니다. 명예심이 눈이 멀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을 사람이 비방했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미리암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이 모든 백성 앞에서 모세를 비방한다는 사실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과도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본문 9절~10절을 보십시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신 후였습니다. 아론은 11절에 나오듯 모세에게 가서 슬퍼하며 죄를 자복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고 병원에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습니. 치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한 촌락에서 매일 밤 한에 서린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일생동안 전도자로 헌신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달 만에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며, 기적 덩어리 자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약 5장 13~16절 말씀입니다.

〈박상미 기자〉



이상남 목사



가을학기 개강예배에서 학생들이 바디워십을 하고 있다. ©박상미 기자

미션크리스찬대학 가을학기 개강예배

미션크리스찬대학교(Mission Christian University:총장 윤요한 박사) 2010학년도 가을학기 개강예배가 30일 본교 강당(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에서 드려졌다.

미션크리스찬대학 졸업생으로는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현근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의 바디워십과 특별한 양으로 조촐하지만 은혜가운데 가열하기를 열었다. '역경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는다(본문: 행 14:19~23)'는 제목으로 설교한

윤요한 총장은 "역경이 오면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며, 역경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준다"며 "결국

유익한 총장 '역경을 통한 유익' 전해

역경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듯 역경이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더욱 다듬어지고 성숙해 지는

것"이라며 "미션크리스찬대학에 모인 학생들은 더욱 깨어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고 전했다. 미션크리스찬대학교는 학문을 통한 경건훈련을 도모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사명자들'을 길러내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입학이 결정되면 졸업까지 전액장학금으로 수학할 수 있다.

문의: 562-869-7497(교무처) E-mail: mcu9191@yahoo.com 홈페이지: http://www.mcuuniversity.org

〈박상미 기자〉

LA ORT 칼리지 2010년 졸업식



LA ORT 칼리지 2010년도 졸업식 ©박상미 기자

정부지원 무료 영어 수강자 35명 졸업

LA의 대표적인 비영리 사회 교육기관 ORT칼리지가 지난 26

일(목) LA ORT에서 졸업식을 개최했다.

ESL 뿐만 아니라 메디컬 오피스 매니지먼트, 약사 어시스턴트, 컴퓨터 그래픽, 데스크탑 퍼블리싱, 컴퓨터 디자인, 컴퓨


터 어카운팅, 메디컬 어시스턴트, 비서 등의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생들은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졸업의 아쉬움을 달랬다.

ORT칼리지의 2010년 졸업생은 123명이며 이중 35명이 8개월간의 ESL 과정을 수료했다.

LA ORT 칼리지는 영주권자 이상의 저소득층을 위한 실용영어와 고급영어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가르치고 있으며 메디컬 오피스 매니지먼트부터 비서 등 실질적이며 다양한 직업교육까지 겸하고 있다.

문의: 323-556-5386, 213-434-8128 한인담당 플라워 박

〈박상미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푸엔테 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총회(대신)직영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미주 대한신학 대학 및 대학원



미주 대한신학 대학 및 대학원은 CALIFORNIA 주 교육국(BPPE)에 등록된 학교로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되심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세계관을 구비한 평신도 지도자와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사명감을 가진 교육 기관입니다.

가을학기 수강

가을학기 교수진 | 정홍이 박사(종말 사상)
고재원 박사(성경 신학)
이동희 박사(기독교 교육학)

제15회 학위 수여식 | 2010년 9월 28(화) 오전 10시
장소 : 중앙루터교회(담임 홍영환)
987 S. Gramercy Pl, LA, CA 90019

2010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 ▶ 원서마감 : 2010년 9월 6일 (월)
- ▶ Orientation : 2010년 9월 9일 (목) 오후 7시
- ▶ 개강일 : 2010년 9월 13일 (월)

모집 및 학위 과정 | Th. B(신학사) Th.M(신학 석사)
B.C.M(기독교 음악 학사) D.Min(목회학 박사)
B.M(선교학 학사)
M.Div(교역학 석사)

본교 및 본교단 현황

본교 및 본교단 출신들은 성공적인 목회 및 선교사역, 그리고 신학교 교수 및 서울 시내 고등학교 교장으로 사역, 또한 미군 군목으로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본교 교훈

1. 하나님께 충성
2. 타인에게 겸손
3. 자신에게 진실

대한 예수교장로회 미주 총회(대신) 총회장 이의완 박사 (김치선 박사 큰 사위)
대한 예수교장로회 역대 총회장 현성초 박사(대한신학 1회졸업)
미주 대한 신학대학 역대명예 총장 최순직 박사(김치선박사 둘째 사위)
미주 대한 신학대학 및 대학원 총장 류당열 박사
미주 대한 신학대학 및 대학원 원장 박상희 박사
미주 대한 신학대학 및 대학원 학장 김호 박사
미주 대한 신학대학 및 대학원 교목실장 박병구 박사
미주 대한 신학대학 및 대학원 교수부장 이원갑 목사

교사

3133 W. Pico Bl. 2Fl. #A
L.A., CA 90019
(213)440-0125
E.Mail: daniel42744@gmail.com



'초청하면 교회 가겠다' 82% '초청하는 기독교인' 2%

올해 백 투 처치 캠페인으로 100만 명 이상에 초청장

요즘 미국교회에는 '백 투 처치 선데이(Back to Church Sunday)' 캠페인으로 전도 바람이

불었다. 9월 12일 주일, 타종교인 부터 교회에 다니지 않는 기독교 인까지 각 지역 교회로 초청하는 이 캠페인은 지금까지 3000개 이상의 교회가 참여했고, 120만 명에 초청장을 보낸 상태. '백 투 처치 선데이' 캠페인 대 변인 필립 네이션(Phillip Na-

tion)은 "100만을 넘는 초청장 의 수를 보면서, 이 시대 하나님 께서 기독교인들을 지역 사회 전 도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을 확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에는 전체 인구의 83%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중 20%만 주일예배에 참석하

고 있다. 미국 내 감소하는 교인 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서 지 난 해 처음 시작된 이 캠페인은 한 두 번 교회에 나왔던 기독교 인이나 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 로 9월 12일 주일예배에 참석하 라는 초청장을 보내는 캠페인이 다. 캠페인 주최 측은 "미국인 중

만지 않는 사람의 82%가 초청을 받으면 교회에 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 해 누군가에게 교 회에 가자고 초청 한 기독교인은 2%에 불과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이번 캠페인이 주요 한 전도 기회가 될 것을 기대했 다. 2009년 시작된 캠페인은 당

시 1500여 교회가 참여해 70만 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작년 캠페인에 참여한 교회들 은 평균 19%의 주일예배 참석률 증가를 경험했다. 더 자세한 사항 은 <http://www.backtochurch.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나라 기자)

로버트 박 "북한 참상 절감... 교회 연합하길"



로버트 박 선교사, @기독일보DB

27일(금) 지미카터 전 대통령 방북 협상으로, 북한에서 7개월 간 수감 중이던 아이잘론 말리 곱즈(31)씨가 미국으로 돌아왔다. 친구였던 곱즈 씨의 신변안전을 위해 그간 언론과의 접촉을 꺼려왔던 로버트 박 선교사(29)가 최근 미국 잡지 크리스체너티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지난 7개월 간의 침묵을 깨고, 심경을 밝혔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북한의 인권참상과 기독교인 박해를 세간에 알리기 위해 두만강을 넘어 북한으로 건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 북한의 자유화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고 말해 그가 원하는 것은 북한 인권 상에 대한 인식과 연합운동이라는 것을 알렸다. 또 "앞으로는 누구도 북한의 자유화를 위해 북한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리조나 투산에 있는 병원에서 전화로 인터뷰에 응한 박 씨는 현재 심경을 전하면서 "만약 여러분이 한번 북한에 들어갔다가 일어나는 그 모든 악한 일을 목도했는

들이 하나된 큰 운동을 일으키길 소망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함께 북한의 인권 탄압을 멈춰야 합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북한을 위한 운동이 일고 있었다면 저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는 어떤 누구도 북한의 자유화를 위해 북한에 들어가는 행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고

곱즈 씨 석방 후 7개월 간 침묵 깨고 심경 전해

너간 로버트 박 씨는 입북한 뒤 체포 돼 6주 동안 북한에 수감됐다 풀려났다. 곱즈 씨와 박 씨는 서울에 위치한 같은 교회에 출석하며 북한을 위해 기도해 왔다. 곱즈 씨의 석방 이후 첫 공식 인터뷰를 통해 박 씨는 "북한을 떠난 후 많은 일들이 있었다.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극악한지 더 잘 알게 됐기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박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학대를 당하고 있는 감정을 호소하는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 그는 "나는 하나님께 화나지 않았다. 단지 교회들에게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내가

데 다시 서구 사회에 돌아와 보니 축하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라. 오히려 더 화나고 실망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에 괴롭다"고 말하기도 했다. 21살에 기독교인이 되었고 2007년 선교사로 파송받아 활동해 왔다는 박 씨는 "북한을 떠날 때 지칠 대로 지쳐있었고, 어떤 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잠언 31장 8절-9절, 시편 82장 2절-4절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다. 북한에 건너간 이유에 대해 "선교사 활동을 통해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다. 북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정치체제에 맞서는 인권단체

물론 그 자신도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내가 바랬던 것은 나의 희생을 통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북한 문제를 인식하고 드러내 말하길 원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기독교인들이 북한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탈북자들과 탈북자를 돕는 북한 주권을 물질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교회와 인권 단체들이 하나로 뭉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홀로코스트 이후로 최고로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대학살이 북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나라 기자)

10대들 "하나님은 자존감 높여주는 존재일 뿐"

미국 10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자존감을 높여주는 치료적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캔다 크리지 딘 교수(프린스턴신학대, 청소년 교회 문화 학부)가 저서 [Almost Christian]에서 밝혔다. 딘 교수는 이 같은 부류를 "도덕적 치료주의(Moralistic therapeutic deism)"라고 명명하면서 10대들이 하나님을 하나의 "신성한 자기 치료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CNN은 미국 학부모와 목회자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책 [Almost Christian]의 저자 딘 교수를 소개하면서,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로 이 같은 "물 탄 신앙(Watered-down Faith)"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보도했다.

들은 대부분 물몬교와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열정을 삶으로 잘 굳혀 가는 듯 보였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합감리교회 목회자이기도 한 딘 교수가 밝힌 신앙적이고 헌신적인

소년 사역자들의 반응과는 달리 이 책에서는 다른 어떤 세대보다 현 10대들이 헌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의견에 대해 다른 기독교 저자 및 리더들도 동의하고 있다. [The Teen Guide to Globe Action]의 저자인 바바라 A. 루이스 씨는 "신앙적이지 않은 10대들은 당연히 헌신적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고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세상을 더욱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10대들의 열정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고 말했다. 한 때 고등학교 종교 부분 교사였다가 현재 에모리대학교 청소년 기초 신학 단체(YTI, Youth Theological Initiative) 대표로 있는 엘리자베트 코리 씨도 이 말에 동감했다. 그녀는 "여전히 많은 10대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길 원하고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교회를 통해 알고 있는 기독교는 더 이상 그들에게 세상을 바꾸고 변혁하기 위한 영감이나 에너지를 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수십 번의 설교보다 신앙의 삶 보여주는 것이 중요



캔다 크리지 딘 교수의 저서 Almost Christian

딘 교수는 약 3,300명의 미국 청소년(13~17세)들을 인터뷰하며 <청소년과 종교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청소년의 대다수가 믿음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불확실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는 개신교부터 카톨릭까지, 보수주의 교파에서 자유주의 교파까지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 4명 중 3명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밝힌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대답했다. 또 이 중 절반만이 신앙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대부분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논리정연한 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저서 [Almost Christian]에서 그녀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표현하는 몇몇 10대

10대 크리스천의 공통점은 크게 4가지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과 간증거리를 갖고 있다. 둘째, 신앙단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셋째, 목적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다. 넷째, 그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다. 그녀는 책에서 '자기 치료적 하나님, 자존감을 높여주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십자가와 희생을 가르치고 나아가 삶으로 그 진리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헌신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청

소년 사역자들의 반응과는 달리 이 책에서는 다른 어떤 세대보다 현 10대들이 헌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의견에 대해 다른 기독교 저자 및 리더들도 동의하고 있다. [The Teen Guide to Globe Action]의 저자인 바바라 A. 루이스 씨는 "신앙적이지 않은 10대들은 당연히 헌신적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고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세상을 더욱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10대들의 열정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고 말했다. 한 때 고등학교 종교 부분 교사였다가 현재 에모리대학교 청소년 기초 신학 단체(YTI, Youth Theological Initiative) 대표로 있는 엘리자베트 코리 씨도 이 말에 동감했다. 그녀는 "여전히 많은 10대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길 원하고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교회를 통해 알고 있는 기독교는 더 이상 그들에게 세상을 바꾸고 변혁하기 위한 영감이나 에너지를 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데이빗 위튼이라는 한 고등학생(12학년)은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기독교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통해 곧바로 변화를 체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뭔가 변화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얻는 이익을 경험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해 복음의 핵심이 청소년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권나라 기자)

내 부모 처럼 마음을 드리는 봉사자 모집

장애 우 사랑교회에서 양로병원 봉사 10년 동안 하다가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매일 찬송가를 암송하시므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 대회를 빛내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과 봉사자 분들(15명)을 초청하오니, 연말연시의 바쁘신 시간들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그랜드 팍 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 12월 17일 오전 9시 30분~11시
- 2312 West 8th, Street, LA., CA 90057-3955
- 중앙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 12월 18일 오전 10시~11시 30분
-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대회는 찬송가 204장을 심사곡으로 하여 상금도 주어집니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100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3등 3명에게 각각 30불, 그리고 찬송가 모두를
다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연락처 : 213-705-0404 / Fax: 213-351-0955
메일 :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9월 13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h3>본교의 특징</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h3>본교 소개</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에 가입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성 + 웨스트)

합동, 9월 총회 앞두고 WCC 반대 결의 다져

전국서 모인 관계자들, 강경 입장 재확인

장로교 각 교단 총회가 예정된 9월 전 서울 장충동 엠버서더호텔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합동 WCC대책위원회 관계자와 목회자, 각 교단 관계자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대용기자

▶ 서기행 목사 "신신학·다원주의·자유주의 저지해야"
▶ 정일웅 총장 "WCC, 다원주의·혼합주의·주객전도"

중경총회장이자 교단 내 WCC 대책위원장인 서기행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WCC 제10차 회의를 오는 2013년 10월에 부산으로 유치하는 NCKK(기장 기감 통합 성공회)는 극소수 교단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양 기독교 올림픽을 유치한 것이라고 자랑하는데, 성경을 지키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으며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복음 전파와 선교와 기도에 전념하는 한국교회 모든 보수교단이라면 WCC 부산 유치를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목사는 "故 박형룡 박사님께서 WCC는 자유주의 신학의 광장이라고 하셨다"며 "WCC는 초혼제 및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등이 보수 신학 신본주의를 추방하는 운동이자 참복음운동의 독이요 선교운동을 무력화하는 것이요 나아가서 보수 신학을 신신학으로 변조하는 운동"이라고 성토했다.

년 WCC 제10차 총회 부산 유치까지 WCC대책위원을 범교단적으로 확장해서 최선을 다해 신신학운동과 자유주의 운동, 종교다원주의 운동을 저지해야 한다"며 "다만 물리적이고 집단적인 반대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로 비취질까 함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 분쟁으로 잘못 인식될까 염려함이고, 우리는 보수신앙을 더 확실히 굳고게 하고 기도운동과 선교, 전도와 교회부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예배에서는 서정배 총회장 사회로 정일웅 총신대 총장이 설교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엡 4:1-6)'을 제목으로 정 총장은 "과거 김재준-박형룡 성경관 논쟁이나 지난 1959년 WCC 탈퇴 등은 장로교회 분리를 가속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리 위에 바로 서려는 교회의 몸부림이자 성령 안에서 하나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며 "이제 2013년 WCC 총회 개최를 앞두고 보수 개혁주의 교회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고, 이를 예외주 시하며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력을 대비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정 총장은 "다만 WCC가 태동하게 된 3가지 동기는 외면할 수 없고, 보수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당면과제"라며 "복음 선교나 사회 선교에서는 힘을 합쳐야 각종 상황을 잘 대처하고 발전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도 다양한 신학적 물음에 표준적이고 성경적이며 무엇보다 통일된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장은 WCC에 대해 "그들의 신학적 태도와 목적, 지향점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확무오한 진리로서의 성경을 거부한 채 하나의 신화로 치부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 기독교의 가치를 상대화시키며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 사역을 다룬 종교의 영적 현상과 동일시하는

혼합주의를 견지하며 △복음 전도보다 사회 선교를 중요시하는 등 둘 사이의 균형을 깨뜨린 채 주객전도를 일으키고 △삼위일체론과 기독교 구원론 등이 전혀 다른 근본 교리의 변질이 일어났다는 등이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NCKK는 소수에 불과한데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차제에 한국교회 보수 개혁주의 연합이 새로이 태동됐으면 좋겠고, 이 연합체가 한기총과도 연대해 성도들이 이 같은 사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동권 목사 "처음부터 성경 벗어난 집단... 어떻게 용납하나"

설교 이후에는 '한국교회의 보수 신앙 확신을 위해(서상식 기하성 중

경총회장), '예장합동 교단의 보수 신앙 파수 및 전파의 사명감당을 위해(박정하 장로부총회장)' 각각 합심 기도했다.

격려사와 축사에 나선 지도자들도 강한 어조로 WCC 총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격려사에는 김동권 목사(중경총회장, WCC대책위원회 부위원장)와 정규남 총장(광신대), 축사에는 타 교단인 기독교 대한성경교회 이만신 목사(중경총회장, 한기총 명예회장)와 한국기독교침례회 지덕 목사(중경총회장, 한기총 명예회장), 예장합신 임석영 총회장 등이 나섰다.

김동권 목사는 "신구약 성경을 일점 일획도 가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는 교회라면 WCC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견해 차이나 감정 싸움이 아닌, 처음부터 성경에서 벗어난 채 새로운 신앙교백을 만드는 집단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신학적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규남 총장은 "오늘 모임을 오면서 1700년 전 교회사적인 첫 모임이었던 니케아 회의가 떠올랐다"며 "저는 광주에서 KTX를 타고 편안하게 올라왔지만, 당시 3백명의 감독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마차를 타거나 걸어서 힘겹게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니 숙연해진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총력을 다해 WCC를 대처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단이 응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임석영 목사 "시들어진 사회 단체인... 영양제 놓치지 말자"

이만신 목사는 "처음에 WCC는

다원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NCKK가 참여한 '생명의 강 공동기도문'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합동 교단의 신학에 찬성하고 동조한다"며 "이처럼 우리도 사도신경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도 WCC 문제로 예상과 같아졌는데, 지금도 NCKK에 복귀하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제가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만신 목사가 빨리 죽어야 복귀할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덕 목사는 "35년 전 총회장으로 일하면서 늘 합동과 통합을 앞세워 연합사업을 했다"며 "합동 교단이 좀더 하나돼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런 대회를 개최할까 바란다"고 말했다. 임석영 총회장은 "우리 교단은 이미 헌법에서 WCC를 예로 들며 확고한 반대를 천명하고 있다"며 "WCC 총회를 계기로 이곳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미 '총회에서 한국교회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며 자신들의 혼합주의 및 각종 사상을 인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총회장은 "9월 총회를 개최한 WCC가 변화를 택할 가능성은 없다"며 "사실 이곳은 교회 연합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회 단체일 뿐"이라며 한국교회의 '무대응'이 신책이라고 주장했다.

임 총회장은 "그런 의미에서 WCC 총회는 이미 혐의체로서의 자격이 없고 기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슈화를 해서는 안 된다"며 "시들어진 WCC에 한국교회가 왜 영양제를 놓아주는가"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대용 기자)

노아의방주 · 솔로몬성전 · 바벨탑 모습 드러내

세계 최고의 기독교문화예술을 창조하고 이를 널리 알려 생명과 사랑, 그리고 희망의 빛을 전하는 취지의 'The BIBLE EXPO 2010(더 바이블 엑스포)'가 8월 27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개막했다. 지난 3월 16일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가진 이래 5개월 여에 걸친 갖은 노력과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수많은 조형물들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엑스포측은 27일 오후 교계와 정계 지도자들 및 수천여명의 성

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개최했다.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먼저 성경 모양으로 제작된 입구에서 커팅식을 가진 뒤, 감사예배를 드렸다.

장자목 목사(간석제일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인생의 차이, 삶의 차이(창 25:19-26)'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한 길자연 목사(왕성교회)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부 공식행사에서는 이번 엑스포 준비를 주도한 이원진 총괄본부장과 임미영 박사의 경과보고 및 큐레이터 인사가 있었다. 김명국 부사장이 사업 소개를 하고 이어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 대표회장)가 대회사, 김영길 의원(조직위원장)의 환영사, 송영길 인천시장의 축사가 있었다. 특히 조용목 목사는 "사

람의 빛을 주제로 펼쳐지는 대서사시 더 바이블 엑스포는 사랑이 식어버린 이 땅에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 우리 민족이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할 것"이라며 "60년 전 인천상륙작전이 민족을 살린 것처럼 더 바이블 엑스포는 북음상륙작전으로 이 땅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의 뜨거운 열기로 한반도를 뒬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2부 마지막 순서로는 점등식



바이블 엑스포 개막식 참석 인사들이 커팅식을 갖고 있다. ©류재광 기자

을 가졌다. 내외빈들이 함께 점등 버튼을 누르자 정문을 시작으로 솔로몬 성전, 바벨탑, 노아의 방주 등에 이르기까지 바이블 엑스포의 다양한 조형물들에 차례로 불이 들어오는 동시에 폭죽이

터졌고, 참석자들은 밤을 밝게 빛내는 아름다운 빛의 향연에 감탄사를 아끼지 않았다. '빛'을 주제로 한 만큼 다양한 소재와 효과를 선보였다.

(류재광 기자)

www.seattleonnuri.com

담임목사 청빙 공고

워싱턴주 Lake Forest Park에 위치하고 있는 시애틀 온누리교회 (미국 C&MA 교단 소속)에서는 지난 16년간 사역을 담당해 오신 김제는 담임목사님의 은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조건

- ①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② 전임목회 경력 5년 이상 되시는 분
- ③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 서류

- 담임목사 지원서 (Application Form) : 양식은 온누리교회 website, www.seattleonnuri.com에서 download
- 최근 인물 사진 1장
 - 자기 소개서 - 본인의 성장 배경, 신앙 간증, 목회 비전, 지원 동기 포함. (2-4 pages)
 - 소속 교회 최근 주보 1장
 - 설교 2 회분 (CD, DVD, 또는 Website Link)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장소: Onnuri Church Attn: PSC Chair 20150 45th Ave NE Lake Forest Park, WA 98155-1710 Tel: 206-371-5934 (PSC Chair) Email: psconnuri@gmail.com (PDF 파일이나 워드파일로 서류 제출 및 문의 가능)

제출 기한: 2010년 9월 30일

GLOBAL VISION BANK

글로벌 비전 뱅크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흥 목사

“독일의 보수·진보교회 연합이 통일 이뤘듯..”

[한국신학의 보수와 진보②] 정일웅 박사



정일웅 박사는 흔히 보수가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만이 사회참여가 아니다. 불의와 해악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사회참여”라고 말했다. © 김진영 기자

빈의 사상을 지지한다. 보수, 즉 진리를 지키자는 의미에서 개혁신학은 분명 보수신학이다. 그러나 보수신학의 하나인 근본주의와는 뚜렷이 선을 긋는다. 현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이와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개혁신학에 진보적인 성격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이미 진보적이지 않은가.”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선 성경의 무오설과 유오설의 대립이다. 보수신학이 전자를 따른다면 진보신학은 후자에 가깝다. 보수신학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들인다. 하지만 진보신학은 성경의 기록자 역시 인간이기에 거기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교리적 차원에서 대립이다.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해석이 대표적이다. 진보신학자들은 이걸 하나의 신화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성경 기록 그대로를 믿어야 한다는, 이른바 ‘축자영감’(逐字靈感)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있다.

“축자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불변의 진리를 전제하는 하나의 정신이다. 만약 성경이 유오하다면, 제각각의 해석들이 난무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 우리는 축자영감이라는 단어의 표면적 의미보다 그 안에 깃든, 성경을 지키고 말씀의 본질을 수호하려는 이들의 열려와 진심을 먼저 헤아려야 할 것이다.”

-사회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를 나누기도 한다. 보수신학, 혹은 보수교회의 사회참여, 어떻게 보는가.

“흔히 보수적 교회는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비친다. 아마 보수교회의 활동이 그만큼의 사회적 파급력을 갖지 못해 듣게 된 말일 것이다. 그러나 신앙은 삶이다. 사회참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이미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그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만이 사회참여가 아니다. 불의와 해

악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사회참여다.

그럼에도 과거 보수의 사회참여가 진보에 비해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이다. 정치적 문제와 소외된 이웃들의 고난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의미를 되새겨, 교회의 내실을 다져나간 과정에서 온 하나의 미숙함이었지 결코 사회를 외면했던 게 아니었다. 지금의 보수교회를 보라. 많은 이들이 사회 약자를 돌봄에 있어 보수교회의 부족함을 자주 진보교회의 그것과 비교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구제는 보수교회가 하고 있다. 북한도 더 많이 돕는다. 기도와 성경에 천착하며 다져온 힘을 지금에서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진보교회는 보수교회와 반대의 길을 걸었다. 최근 진보적 교회들이 교회성장에 관심을 가진다는 말을 들었다.”

◆ 보수가 북한 더 많이 도와... 정치적 이슈와는 진보가 먼저 NCCCK엔 진보교회 정통성 없어... 한기총과 단일화해야

-보수교회의 당파성이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건 진보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한 예로 진보교회는 굉장히 반미적인 입장을 가진다. 물론 보수교회는 그 반대다. 이런 뚜렷하고 본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정치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다. 한국의 역사를 고려해야 한다. 솔직히 미국이 돕지 않았으면 지금 남한이 존재할 수 있었나. 이걸 묻고 싶다. 남한이 이만큼 살게 되고 이런 단계까지 온 것이 과연 미국의 도움 없이 가능했겠는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미국을 말하면서 북한을 빼놓을 수 없다. 보수는 반복, 진보는 친북, 이런 옳은 공식인가.)

“진보교회는 북한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들을 옹호하려 한다. 그렇다고 보수교회가 북한을 무조건 배척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대북, 대정부, 대사회, 대국제 관계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실제로 보수교회가 북한을 많이 돕고 있다. 한기총이 그 대표적 기관이다. 그런데 이 북한과

의 문제를 진보교회가 먼저 이슈화시켰던 건 맞다. 지난 1988년 2월 당시 진보교회 측에서 통일선언문이라는 걸 발표했다. 진보교회가 먼저 문을 연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지금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있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런 진보교회의 행동 이전에는 북한의 정치적 계획이 숨어있다. 일제 치하 때 북한은 일본에 기독교연맹을 만들었고 한국에도 조선기독교연맹을 만들었다. 정치적 기구였다. 이후 해방을 맞아 이 기구들이 남북으로 흩어졌는데, 북한에선 그대로 조선기독교연맹이 됐고 남한에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됐다.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974년 그 이름에 교회를 넣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거듭났다. 지금의 NCCCK다.”

-보수와 진보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서로 연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때 독일교회가 독일의 통일에 무엇을 기여했는지 연구한 적이 있다. 결론은 당시 독일교회가 하나로 연대했었다는 것이다. 에카테(독일개신교회협의회)라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다. 이것이 엄청난 일을 한 것이다.

한국교회가 연대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는 기독교 최대의 과제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다. 둘째는 사회봉사를 위해서다. 세상을 섬기는 일은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다. 그런데 이 사회봉사에 있어 북한을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금까지처럼 북한을 계속 도와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 주기만 해선 안 된다. 우리가 주는 것으로 북한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있어선 정치적 줄다리기가 필요하다. 정부는 보수성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경계하면 서 문을 열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연합도 이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하자면, 한기총과 NCCCK를 하나의 단일 기구로 만들었으면 한다. 그래서 대북, 대정부, 대사회, 대국제 관계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교회에 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김진영 기자)

최일도 목사 “작은 일 했는데 많이 알려져 부끄럽다”



최일도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담뽀’ 최일도 목사가 28일 오후 ‘선진화를 향한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주제로 성남 시청에서 열린 21세기분당포럼(이사장 이영해) 주최 강연회에서 남긴 말이다.

최 목사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수고 덕분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 주는 이 작은 사랑의 실천 행위가 묵묵히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그 나눔의 정신과 자원봉사의 열매가 오늘의 다

21세기분당포럼 강연회서

20여년 사역 소회

일공동체와 다일복지재단을 있게 한 것”이라며 “내게 있는 것”이라 하며 “내게 내가 갖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남은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꼭 있어야 하는 하나를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자원봉사 활동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이웃 사랑의 태도요 나눔의 정신”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저의 민민 선교 22년을 돌아보면 실로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참으로 많다”며 “어두운 곳에 단지 작은 촛불 하나 밝혔을 뿐인데,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이듬없는 봉사자들에게 의해 점점 확산된 것 뿐”이라고 겸손해했다. “제가 실제로 한 일은 너무 작는데 밖에는 크고 많은 일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참 부담스럽다”고도 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선진화를 향한 자원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진정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참된 나눔과 섬김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을 봉사 현장에서부터 찾아 나서야 하리라 생각한다”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고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실천을 이 땅 위에서 작은 것부터 실현해 나가는 일을 한국 사회가 모범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계층간 집단 이기주의와 사회 갈등을 깨끗이 청산해 버리기를 원한다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참사랑의 나눔을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보인 사람들이 봉사 현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모습이란, 현장에서 겪어

보이지 않

21세기분당포럼 강연회서

20여년 사역 소회

은 사 람 들 은 아 무리 말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여야가 사회복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지만, 봉사 현장에서 함께 따돌리며 현장에서 묻어나오는 소리를 경계하게 들어야 한다”며 “시민들도 먼저 공동선에 대한 공감과 연대 의식이 필요한데, 한 민족 구성원들을 경제적 안정과 물질적 욕구 대상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물질적 빈곤 퇴치와 분배정의 실현을 넘어서 시민들과 국민들 사이, 한 민족과 타 민족들 사이에도 지체의식과 박애정신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대웅 기자)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지난 20년간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종합법률그룹으로서
고객 한분 한분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상법 / 소송	파산법	이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 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 ▶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회사 설립, 계약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신용 문제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종교이민, 가족이민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대표변호사 이문규

- LEE&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93년)
-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 연방법원 및 세법관할 정회원 변호사
-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 미주 상공의 총연합회 기로 변호사
- 국제 Law Firm Couderc Brothers 근무
-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의 수천 건 해결



이문규 법률그룹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IRVINE 949-442-8370

LA Office	IRVINE Office	SEOUL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콘길타워 1904호 822-510-5200

한국과 다르고 미국과 같지도 않은... '이민신학' 논한다

1903년 하와이 이민 이후 100년을 훌쩍 넘은 미주 한인인민사회. 그간 이민사회의 발자취를 더듬어 정리하거나, 한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이민사회의 중

회, 이민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학적인 방향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조망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이번 심포지움을 설명했다. 오상철 목사는 "이민신학"이라

교회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신학적, 성서적으로 인도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신학자와 목회자, 그 둘의 통합을 논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3개 트랙으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성서학 트랙으로 존 안 박사(1세, 1.5세, 2세, 3세의 유대-바벨론인들과 코리안 아메리칸들), 김학진 박사, 김현철 박사 <관계라는 주제로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에게 비취 본 창세기 해석>, 최홍식 박사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나타난 성령의 사회적 기능과 중요성에 관한 연구: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신학에 대한 함의>이다.

두 번째는 목회자 트랙으로 박희민 목사 <건강한 이민목회: 후배 목회자들에게>, 정인수 목사 <건강한 이민교회와 팀 사역 목회>, 민중기 목사 <이민자 서재필과 정치적 제자도>이다.

마지막으로 "신학과 이민교회의 통합"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여기서는 크리스티나 강 박사가 <한인 평신도 여성들의 교회 사역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주승중 박사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전략>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1세대와 2세, 목회자와 평신도,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잇는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정인수 목사, 박희민 목사(새생명선교회) 등 미



제2회 이민신학 심포지움에 대해 설명하는 정인수 목사(왼쪽에서 세번째). 왼쪽부터 김재홍 목사(심포지움 준비위원), 오상철 목사(이민신학연구소장), 정인수 목사, 조상진 장로.

주 한인교회 대표적인 1세 목회자들은 물론 피터 강 박사(폴리신학교), 존 안(오스틴장로교신학교) 등 2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함께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심포지움과 함께 발행되는 <이민신학 논단>에서는 크리스 윤 박사의 <미주 영어목회의 모델과 미래 목회방향>, 허동연 교수의 <미운 오리 새끼인가 백조인가? 미주 한인 2세 사역을 위한 선교적 접근>, 최윤정 교수 <이민교회 청소년들의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의 논문이 실려 2세를 위한 이민교회의 사역과 방향을 재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서정운 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총장, 노영상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미국과 한국을 잇는다는 의미도 더한다. 이는 이민교회가 한국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의해 시작되고 발전돼 왔지만 한국의 영

적, 민족적, 문화적 토양을 바탕으로 독특한 신학을 형성하고자 하는 이민 신학자, 목회자들의 노력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대변한다. '신학'을 논하는 심포지움이지만 평신도들의 활약과 동참도 기대된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함께 한 조상진 장로(연합장로교회 팀사역위원장)는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을 다하겠다"면서, 위로 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참석자들을 섬기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모든 세션은 평신도들도 참석할 수 있으며, 이민자로서 혹은 이민자의 자녀로 살아온 목회자들이 풀어 놓는 애환과 기쁨을 나누며 그 의미를 신앙 안에서 찾아간 이야기를 전할 때, 이민자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위로 받을 것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다.

지평 넓히는 계기 되길

정인수 목사는 마지막으로 "조지아 주뿐 아니라 알라바마,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생산적이고 실천신학적인 좋은 행사에 목말라 있다"면서 "팀사역위원회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봉사를 약속한 만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자리를 통해 힘을 얻고 의식의 지평을 넓히며, 위로 받고 가는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심포지움 등록비는 목회자는 50불, 평신도는 100불, 신학생들은 15불이며, 호텔에 묵어야 하는 참석자들은 호텔비용을 포함 100불이다. 등록한 참석자들에게는 식사와 논단이 제공된다.

문의 (714) 446-6207 www.thekait.com thekait1@gmail.com

동남부 지역 목회자들 의식의 <박현희 기자>

11월 18일~19일 연합장로교회에서 제2회 이민신학 심포지움

심축이 되어온 '이민교회'는 그저 한인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취급되어 이민사의 일부만을 장식할 뿐이었다. 한국에 있는 교회와 다르고, 미국에 여타 교회와 같지 않지만 뒤라 설명하기 힘든 부분, 그것이 바로 '이민신학'에 담겨있다.

이민신학연구소(소장 오상철 박사)에서 개최하는 제 2회 이민신학 심포지움이 오는 11월 18일(목)부터 19일(금)까지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열린다. 이민신학연구소, 북미주 한인성서학회에서 공동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움은 아틀란타에서 열리는 북미주성서학회 모임 직전에 열리며 '성서와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교회'를 주제로 펼쳐진다. 지난 26일(목) 기자회견에서 정인수 목사는 "한인 이민역사가 깊어지는데 미국 신학교에 빠져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신학자들,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 앞으로 이민교회와 이민사

는 개념이 없었을 뿐, 다니엘, 아브라함, 에스겔 등 많은 성경의 인물이 이민자였고 이들이 살아간 모습, 자녀를 키운 방법을 연구해보면 우리의 자리가 보인다.

지난해 1회 심포지움은 252명의 목사님들과 26명의 학자들이 모여 '이민신학이 무엇인가'라는 광범위한 부분을 논의했다면, 이번 2회에서는 '미국 북문화 속 에 있는 이민자들의 이민문화, 이민교회를 신학적으로 풀어내면서, 이를 이민사회와 교회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한 담론을 나눌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 목사는 "이민사회 성장이 정체되고, 교회 역시 그 영향을 받는 지금의 시점에서 신학적이거나 성서적 대안 없이 계속 앞으로만 간다면, 초기 이민자와 후기 이민자들의 차이, 1세대와 2세의 갈등이 결국에는 미래 이민교회에 큰 짐이 될 것이다. 신학자들과 현장 목회자들의 간극이 있지만 함께 모여 이민신학을 정립하고 이민사회와

2010 센서스 핑크 캠페인, 본사 감사패 수여

한인은 Outstanding Partner

'2010년 센서스 핑크 캠페인'이 26일(목) 오후 2시부터 한인회관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는 센서스의 정확한 한인 인구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온 아틀란타한인회(회장 은종국)와 3개 Complete Count Committee 및 본사를 포함 지역 언론들에게 감사패를 전하는 자리였다.

캐더린 박 PR스페셜리스트는

"어느 해보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이 높았던 2010년 센서스의 결과가 기대된다"면서 "센서스 측에서 조지아 및 동남부 지역 한인 단체들과 맺은 파트너십 관계는 약 900여 개로 이 중 오늘 감사패를 전달받는 여러분들은 센서스의 중요성을 한인사회 구성 구석 구석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센서스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한인단체와 언론들

교계의 협력도 돋보였는데 아틀란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석민 목사)에서는 지난 3월을 센서스 홍보의 달로 삼고 지역교회를 방문해 센서스를 알렸으며, 여러 단체와 개인의 노력의 결과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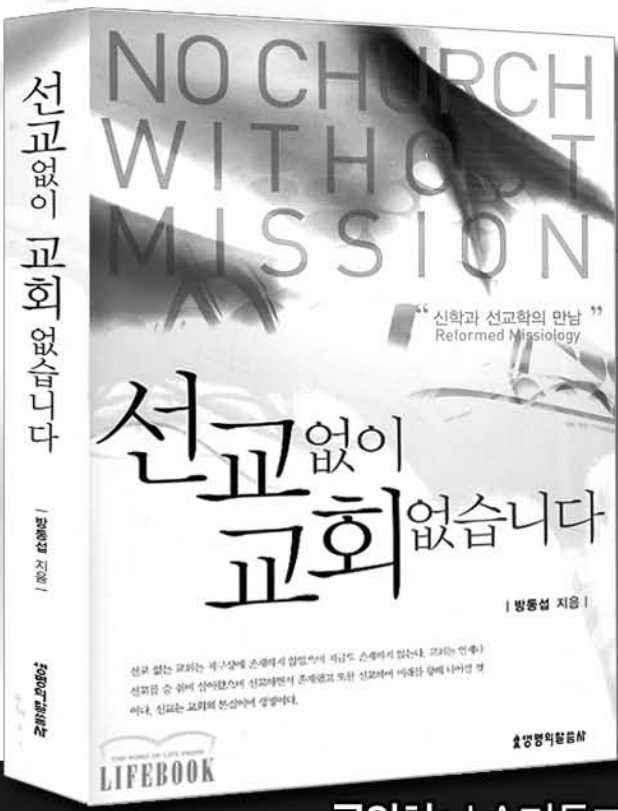
수인종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가 이번 인구조사에서 가장 활동적인 그룹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박스페셜리스트는 덧붙였다.

같은 베스퀴에즈 시니어 파트너십 스페셜리스트는 "한인들은 'outstanding partner'로서 오늘 참석한 분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치하했다.

한편, 센서스 인구조사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됐으며 4월 센서스 설문지를 일괄 발송했으며 설문지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는 요원들이 추가적으로 가정을 방문했다. 그 결과를 오는 1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박현희 기자>

지난 1700년 동안 교회가 잘못 사용한 선교의 개념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선교의 원형을 회복하여 교회가 참으로 가이할 진정한 선교의 길을 제시한 혁명적인 저서로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가 함께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방동섭 목사의 화제의 신간!

왜 이 책이 중요한가?

- "이 책은 강추가 아니라 강강추를 하고 싶은 책이다." -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대표)
- "선교의 종교개혁적 저작이라고 불러서 지나침이 없다." - 유관지 박사(북한교회연구원(NCRC) 원장)
- "선교의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책은 지금까지 한국 신학계에 없었다." - 김성욱 박사(총신대 선교대학원 교수)
- "선교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책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책이다." - 김학유 박사(합동신학대학원 교수)
- "21세기 신학계에 가장 의미있는 저서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 신경규 박사(고신대학교 교수)
- "누구나 선교를 말하려면 이 책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김홍만 박사(국제신학대학원 교수)
-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지고 가서 매년 1번씩 읽어야 할 책이다." - 오준문 선교사(캄보디아 선교사)
-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늘 길을 닦는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제공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 이길소 선교사(Global Vision Foundation 대표)
-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왜 모든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게 되었다." - 신종철 선교사(GMC 지구선교공동체 대표)

• 구입처: LA기독교서점, 미주성산교회 T. 213) 975-1111, E-mail: dongsubbang@gmail.com

2010 북가주선교대회, 평가와 전망

한국선교의 위상 재평가, '선교'의 중요성 냉정히 돌아보아야

북가주 선교대회가 29일 선교집회를 끝으로 3박 4일간 일정의 막을 내렸다.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북가주선교대회는 올해로 세 번째 들어서며 운영 면에서 안정된 모습을 찾아 가고 있다는 평가다.

매일 새벽 7시부터 월새없이 진행되는 짜임새있는 강의 일정, 첫날부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김용의 선교사, 유병국 선교사, 안찬호 선교사, 마지막 때 저녁집회마다 강사들은 열변을 토하는 집중력을 발휘했다. 저녁집회 강사들은 머리가 아닌 마음을 흔들어놓는 열정 있는 강의를 전했다. 강사수준이나 강의내용면에서도 짜임새있고 강의내용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대회였다. 흔히, 이런 대회행사 강의에서 오류에 빠지기 쉬운 선교단체 홍보나 과시적 멘트도 없었다. 무엇보다, 이번 북가주선교대회가 진행되기까지 준비하

는 준비위원회 목회자들과 장소를 제공해준 교회의 수고가 뒷받침된 행사였다. 장소를 제공한 임마누엘장로교회 측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순간순간 화장실 휴지까지 점검하면서 사소한 사항 하나까지 뒤에서 챙기는 정성이 돋보였다. 이들의 수고가 없이는 결코 이뤄질 수 없는 대회였다.

특히, 이번 선교대회는 나이가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참석했다. 어떤 경우는 주변의 추천과 권유로 충분히 이번 대회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도 참석해 은혜를 받은 선교사들도 있었다. 참석한 선교사들은 시차의 장벽을 겪으며 피곤함속에서도 새벽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쉼없는 일정속에서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대회였다.

한국선교의 위상 재확인
이번 선교대회는 특히 참석한 선교사들이나 성도들에게 한국선교의 위상을 재확인하

는 자리였다. 서구권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선교사 파송수나 선교사파송 증가율은 세계기독교가 주목하기에 충분했다.

한국교회의 선교는 세계적으로 규모와 지위면에서 일단 달라졌지만, 거기에 걸맞은 성숙한 국제적 지도력과 리더십, 미전도종족 지역에서 협력모델구축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열정을 갖고 선교에 동참해 왔지만, 협력없는 비효율적 선교사 파송이나 선교단체, 교단간 선교지 중복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동시에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난제 속에 있다. 한국교회가 선교의 책임감을 갖고 얼마나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획적으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선교에 대한 막연한 인식, 실제적인 이해 부족
선교대회 기간동안 매일 저녁 집회는 많이 참석했지만, 등록을 해야하는 오전이나 오후 강의는 상대적으로 참석자가 많지 않았다. 선교에 대한 전

체그림을 그려주는 훌륭한 강의를 듣기에 북가주 성도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했다.

사실, 선교대회에 강의하기 위해 자비량으로 먼 곳에서 온 강사진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강의 하나를 듣기 위해서는 수십 배 이상의 소요비용과 시간을 들여 미국에서 이 지역과 먼 타주로 가서 들어야만 한다.

이런 현상은 북가주 기독교인들이 선교의 중요성과 선교대회 자체가 가진 중요성을 모르는 인식 부족의 영향이 크다. 아직까지 북가주 교회 대다수 성도들이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막연히 알고는 있지만, 왜 해야 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중요한지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성도들은 지금 선교 전략의 변화나 선교지형이 시시각각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목회자들이 이제부터라도 먼저, 교회 내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세계선교에 대한 현황과 전략의 변화에 대해 성도들에게 체계적으



2010 북가주선교대회 29일 마지막 날, 참석한 선교사들이 모두 나와 찬양 부르는 장면.

로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선교 열풍이 아닌, 실제적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이번 선교대회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인미교회는 어느 지역, 국가보다 다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유리한 여건 속에 있다. 수많은 인종의 집합소인 미국에 있다.

그런 면에서, 이민교회는 그동안 가까이 있는 다른 아시아 교회와도 제대로 교류를 제대로 갖지 못해왔다. 한인커뮤니티와 한인교회가 타문화권과의 교류면에서 폐쇄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하나씩 극복해야 아시아 교회와 연합해 미주지역에서도 바람직한 선교협력모델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북가주 선교대회가 진정한 성과를

내려면 단지 선교 열풍만 일으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일상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이와같은 대회가 교회와 개인의 실제적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성도들은 선교에 직접 동참하지 않더라도 국제적인 정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

북가주교회들은 교인 규모나 교회 수에 비해 적은 선교사 파송현황 등 선교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북가주 한인교회 성도들이 '선교'라는 지상명령을 놓치고 다른 곳에 더 관심을 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보는 자리가 돼야 한다.

(임형진 기자)

루이스부시 "4-14세를 선교동력화하라"

세계적인 선교동원가 루이스 부시(Luis Bush)는 북가주 선교대회 마지막날 29일 세계 선교를 위해 4-14세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도전했다.

위도 10-40도 미전도 종족 구원을 위한 10/40 윈도우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유명한 부시는 29일 임마누엘교회(손원배 목사)에서 진행된 집회를 통해 "세계 변혁을 위해 4/14 윈도우에서 새로운 세대 일으키기(Raising up a new generation from the 4/14 window to transform the world)"라는 제목의 강연을 전했다. 그는 4-14세의 어린이 집단을 4/14 윈도우라 지칭하며 오늘날 세계 선교를 위해 이들을 동력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

는 선교에 대한 새로운 큰 도전을 감지한다. 4/14 윈도우이다. 10/40 윈도우가 지리적인 윈도우였다면 4/14 윈도우는 인구통

4/14 윈도우 개념 소개하며 어린이 선교 강조

계학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 세계를 변혁시킬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계시다. 오늘날이 바로 선교를 위해 어린이들이 필요한 때인지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동역하기 원하신다. 선교의 우선순위를 4-14세 어린이들에게 두어야 한다."

그는 마태복음 18, 19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오늘날 하나님이 어린이들을 객체일 뿐 아니라 주체로, 청중일 뿐 아니라 설교자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그는 무슬림과 기독교인들 간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는 인도네시아에서 8살짜리 어린이 설교자의 등장으로 두 종교 세력간 평화가 찾아왔었다고 실례를 전했다. 부시는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일을 시작하셨다. 어린이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다"고 말했다.

부시는 영적, 정서적 등 많은 부분의 발달이 아동기 때 이뤄지므로 이 시기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신앙을 가진



세계적인 선교동원가 루이스 부시(Luis Bush)는 북가주 선교대회 마지막날 29일 세계선교를 위해 4-14세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도전했다.

사람의 85%는 14세 이전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는 한 한국 교회 목사가 북한을 방문, 어린이들이 유아기부터 국가로부터 주체사상 교육을 받아 부모를 감시하는 '스파이'가 된 것을 목격한 후, 어린 시절 교육의 중요성

을 절감, 어린이 양육에 주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부시는 어린이 선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어린이들을 선교의 자원으로 보고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런 반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전했다. 예로, 콜롬비아에서 진행된 한 설문회 따르면 4-14세 어린이가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불과 1시간에 불과했으며 4명 중 1명은 지난 3달 동안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

부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뜨거운 기도와 헌신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크게 쓰여지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한국인들의 출산률 저하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인들이 40년전 평균 5명의 자녀

를 두었다면 오늘날은 1명이라 하며, 한국인들이 더 많은 자녀들을 두어서 계속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선교에 더 크게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시는 "어린이들은 선교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들에게 진정 그 자리를 마련해줄 것인가?"라고 청중을 도전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이날 저녁 집회에서는 김세도 선교사(한국 GMP선교회 대표, 전 터키 선교사)가 선교보고를 전했으며, 박동서 목사(방주선교교회)의 사회, 이보형 전도사팀의 찬양, 박지원 목사(드림교회)의 기도, 서대석 장로의 성경봉독, 하시용 목사(서머나한인감리교회)의 헌금기도, 최철 선교사(T국)의 축도로 진행됐다.

(김영빈 기자)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OPEN 7DAYS A WEEK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김용의 선교사 '당신에게 복음은 실재인가'

2010 북가주선교대회에 대한 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첫날(26일)주제 강의를 맡은 김용의 선교사는 참석자들에게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실재인가"라며 도전했다.

김용의 선교사는 선교가 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접감하도록 참석자들을 강력히 도전했다. 그는 "내 삶의 실재가 되어서 나를 끌고 가는 주인, 나의 전 인격이 반응하게 되어있는 것이 바로 실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충만해져야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제일 기쁨이 충만한 분은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면 맞을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

복음을 전하러 교회들을 많이 가서 청중을 보면 신자들의 직분을 파악할 수 있다. '예수 믿는 것 어려워요'하며 표정이 무거운 모

"어느 교회 청년 수련회에 갔다. 복음에 대해서 도전하니, 적어도 80%가 인생에 한 번도 구원의 의미와 십자가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반응했다.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부모의 성화에 끌려서 온 것이었다. 우리 아이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무슨 근거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김용의 선교사는 한국교회에 위기와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밝혔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래된 교회 아니고 이제 백년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열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아직도 우리는 한국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인가. 심각한 위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동의하면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나



김용의 선교사

부끄러운 술집아들 출신에 가 방곤 짚고 조폭두목이 될 용기도 없었다. 내가 싫고 저주스러워 자학에 시달리는 불쌍한 청년이었다."

"한국교회 70년대 초 보편적인 내용을 설교를 하는데 충격 그 자

서 자다가도 별떡 깨어 놀랄 일이다." 사람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털썩 주저앉을 때도 있다.

그런데 혼자 '종으신 하나님'을 흥얼거린다. 날 먼저 사랑하셔서 세상의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던 주님, 종으시다는 말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겁 많고 의지박약한 나도,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갈수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흔들리고 넘어져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영원하다."

"우리 공동체 전체는 종신헌신이다. 무소유로 들어오게 하여서 기도만으로 살게 한다. 백여 명 정도 되는 종신선교사들이 있다. 함께 공동생활하고 있다.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 뜻인데 돈이 없어서 못 해본 적이 없다."

김 선교사는 다섯 자녀를 모두 선교사로 서원해 현재 모두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내 아들이 국제 선교단체에 속해서 선교를 아프리카로 갔다. 한 번은 그곳을 방문한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 아들을 떠나와야 되었는데 갑자기 전날 밤부터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도저히 다음날 아침 떠나갈 수가 없었다. 나와 자리를 바꿨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막노동용 하던 사람이라 오히려 그 자리에 적합한데, 내 아들이 거기 남아있어야 하나.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밤을 꼬박 새우면서 아들을 두고 떠날 용기가 안 생겼다. 나의 마음을 채찍질하면서 카드를 썼다.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에서 만나자' 적어도 무식한 저에게는 선교란 말의 의미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선교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다른 것을 다 잃어도 마지막 놓을 수 없는 여러분의 실제,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이신가. 정말 십자가인가."

김용의 선교사는 "먼저 복음이 되어야 선교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임형진 기자)

북한 홍수 피해 심각!



신의주와 단동 사이의 물에 잠긴 어적도 모습. 많은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샘의료복지재단 도움의 손길 요청

평양(580mm)을 비롯해 평안남북도, 함경남도 등 북한 중부 지역에 평균 300mm, 황해북도에는 7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88,400여 세대의 주택이 침수, 파괴되었고 600여 명 사망 및 수만 명의 이재민 발생했다고 샘의료복지재단이 전했다. 북한의 연간 강수량이 최대 1000mm에서 1200mm임을 감안하면 지난 열흘 사이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짐작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인 압록강이 범람해 단동시는 관전 방향, 집안으로 이르는 모든 압록강변 대부분의 도로가 침수 되었으며 강

변에 있는 많은 상가와 집들이 수해를 입었다. 이는 지난 1995년 대홍수 이래 가장 큰 피해다.

하지만 단동과 맞닿아 있는 신의주의 피해는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동

시내의 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홍수막이로 인해 물길의 신의주 쪽으로 흘렀기 때문이다. 신의주 대부분의 건물이 물에 잠기고 집은 물 밖으로 지붕만 보이며 위치를 알릴 정도다.

전체 경작지의 11%가 침수되었고 특히 곡창지대인 함흥평야의 흉작물에 잠기는 등 압록강변 농경지가 대부분 침수되면서 북한의 농작물 수확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그 외에도 농업구조물 발전소와 변전소가 침수됐다.

송전용 전주 800여개와 전선이 유실되어 북한의 전력 공급에 치명적인 손실이 예상된다. 또 탄광 침수와 함께 석탄 수십만 톤이 유실됐고 철길과 도로가 파괴되거나 유실돼 주민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샘의료복지재단은 현지 소식을 전하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샘 후원 계좌번호: Bank of America 125000024 - 11852514 (to: SAM Seattle)

(김브라이언 기자)



단동지역 다리가 무너져버린 모습

2010 북가주선교대회 첫째 날 저녁 집회서

습을 보면 교회 다닌 연수를 대강 집착할 수 있다. 모태신앙이면 더하다."

"오래 교회를 다니던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 복음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기적이다. 아마 예수님이 '네가 고난의주님 같고 내가 너 때문에 사는 것 같다.

믿어주는라고 고생이 많다고 하시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고민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다. 듣고 보니 이상하죠? 복음을 믿는다. 안다면서 그것이 실재가 아니다. 그것이 실재라면 내 삶의 전 인격 실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내 인생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 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다면 그런 불미스러운 교회회의모습이 가능할까?"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의 이런 이상한 모습, 전혀 실재가 되지 않는 교리, 예배, 기도, 교회 와서 봉사 잘 하고 성가대, 헌금 나름대로 하니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쩌면 종교적 외향은 갖추었는데 신앙생활이 진정 시작돼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적어도 내게는 믿음이 아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란다. 복음은 인생의 존재가 바꾸는 것이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 옛 사람에 대해서, 병든 자아에 대해서 어떤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주님이 이루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이지, 적극 사고방식이 믿음이 아니다. 기독교는 심리치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진리를 어쩌면 이렇게 현실팩처럼 버렸는지 모른다."

김용의 선교사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간증을 고백했다.

"저는 교회,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고급술 집을 운영하셨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갑자기 닥친 가난, 폭력의 뒷골목에서 살았다.

체였다.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가 있다는 이야기도 생전 처음 들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다. 평생 감동하다가 죽을 것 같았다. 내가 널 사랑한다는 말로 들리는 것이다. 난 이런 말을 문장으로도 부모에게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 성경 이해는 못해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었던 놈인데 부모, 일가 친척도 없는데 나를 사랑했다는 말이 믿어졌다면 말이다.

30년이 넘도록 이것 하나 붙들고 미쳐서 살아왔다. 지금까지 눈물로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오고 있다."

"솔직한 말로 예수 믿은 것이 예수 피 값으로 예수 믿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피 값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 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살아도 예수 피 값만큼 살고 죽어도 예수 피 값만큼 죽어야 한다. 십자가 어떤 은혜인데,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 같지 않아서 저 같은 못난 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

그저 감격이다. 너무 감사해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0%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민중기 칼럼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근래에 들어 웃시아의 묘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로 35cm, 세로 34cm, 두께 9cm의 석회석 판인데 4줄의 아랍어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유다 왕 웃시아의 뼈가 옮겨졌다. 열지 말라." 웃시아 왕은 16세에 즉위하여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비상한 도움으로 강력하여 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웃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 왕의 선하고 정직한 부분을 배우고 실천하였습니다. 아울러 그에게는 훌륭한 멘토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스가라"였습니다. 웃시아는 스가라의 말을 존중하고 순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구하였습니다. 스가라가 사는 동안에는 계속 여호와를 찾으면서 정치하였던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웃시아의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험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스가라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

웃시아 왕의 성공

있었습니다. 그가 문동병에 걸렸던 약 10년을 제외하면 그는 완벽한 통치자였습니다.

웃시아는 농업을 사랑하여 산과 좋은 밭에 농사를 짓게 하고 포도원을 심어 관리하게 하여줍니다. 경제가 일어나고 힘이 생기는 대로 그는 무기를 개발하고 광야에 요새를 건축하여 국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도움을 주셔서 블레셋을 치고 암몬을 굴복시켰으며, 아라비아 사람들까지도 몰아내어 그 이름에 애굽 변방에 까지 퍼졌습니다. 그가 세우고 훈련시키며 무장시켰던 307,500명의 군대는 어디든지 진군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였으며, 그들이 파견되어 있던 성읍은 각종 화살과 돌을 날리는 무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강력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성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

스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좇아서 나아가는 동안 웃시아는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성공으로 백성이 편하였고, 국가가 강력하여졌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집트에게도 자람이 되었고, 주변의 민족들도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혼돈의 이 시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가? 나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그들의 모범을 교훈 삼아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에게 좋은 신앙의 멘토가 있는가? 내가 물을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 그들이 나를 돕고 인도하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지원을 받고 있는가?

성공은 고립된 나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아울러 성공은 나를 돕는 멘토와 헌신적인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양성필 칼럼



양성필 목사
베델한인교회 행정담당

세상에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가짜 같은데 진짜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만 보기 때문에 겉모습을 가지고는 진위여부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이태원 거리를 걷다가 생긴 처음 보는 분이 제 팔을 붙잡으면서 "좋은 물건 있으니 와서 보라"고 합니다. 갔더니, 이분이 뭐하는 분인가 하니까 한국에서 일명 '짜퐁 명품'을 파는 분입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가방과 시계를 똑같이 만들어서 30만원 40만원에 팔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명품 브랜드고 있었고 모르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 있는 것이 진짜하고 같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했더니 이분이 씨익하고 웃더니만 "저 모르겠어요? 저 텔레비전에도 나왔는데...이 빨간 진열 박스 어디선가 본 듯하다 않습니까? 9시 뉴스에도 3번이나 나왔는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꼼꼼이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기

억이 나면서 그때 9시 뉴스의 내용이 대충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얼마나 재미 있었나면요,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태원 동대문 뒷골목에 진짜하고 똑같은 복사품, 일명 짜퐁명품이 팔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교한지 진짜하고 재질까지 똑같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와서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진품과 똑같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심각하게 말하는데, 저는 너무 웃었습니다. 지금 저 뉴스가 사건을 고발하는 것인지, 짜퐁을 홍보해주는 것인지, 진짜하고 똑같은데 값은 10분의 일도 안 된다는 말

못되어서 나이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 새로운 브랜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는 나이키 신발 가격의 10분의 1 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바로 동대문 뒷골목에서 판매하는 '나이키'였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겉모습만 보서는 나이키와 똑같은데 재질은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나이키를 사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이키를 구입하는 바람에, 나이키가 휘청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이런 불법 복제에 온상이라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세상이 그렇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고, 큰소리치는 사람이 이기고, 주

전도서에 보면 이런 불법의 사람들이 잘사는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짜가 이기는 듯 하고, 진짜 같은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염소인데 양이라고 우기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의 보좌 앞에서 서서 아나니아와 사바라처럼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를 모르세요."

나이키 VS 나이스

이 마치 짜퐁을 쓴 값에 살 수 있다고 광고해주는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그리고 뉴스에 잡힌 것을 자랑하는 그 짜퐁을 자랑스럽게 팔고 계신분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진짜 같은 가짜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버젓이 떳떳하게 사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가짜가 진짜를 위축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초에 나이키가 처음으로 한국에 상륙했을 때, 쿠션이 좋은 스포츠화라고 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심지어는 신문에 나이키 신발을 사주지 않는다고 밥을 안 먹는 자녀들이 있다는 기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이

먹이 법보다 가깝다는 등의 말을 서슴지 않으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것이 세상 한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은 안 그런가요? 마태복음 7 장에 보면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선지자라고 하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목사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저기서 등장합니다. 지금 세대만의 일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계속 반복되어온 일입니다. 잠언,

하고 거짓을 고한들 용납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거짓이 승리한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주의 심판자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짜퐁인생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보석 같은 인생을 사십시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알아주는 인생을 소망하시고, 그렇게 자녀들을 제자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궁정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하루가 더 복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김한요 칼럼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주의가 요청되는 곳에 자동차들이 질주하지 못하도록 길에 턱

(스피드 범프)를 만들어 놓곤 한다. 속도를 억지로 줄이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 과속했다가는 사고 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턱을 한국말로로는 과속방지턱이라 부른다. 흥미로운 것은 이 턱을 인도네시아 말로

도네시아 사람들의 재치를 엿보는 듯하다. 왜 '잠자는 경찰'이라 명명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현지 선교사님도 힌트를 주셨는데, 경찰이 잠자고 있으니, 경찰 깨지 않도록 살살 가라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

르를 보면 경찰이 숨어서 스피드건을 쏘고 있다고 생각하고, 속도를 빨리 줄이라는 경고판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경찰이 보이나 안보이나 과속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경찰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폴리스티두르로 인하여 과속하지 못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과속질주하지 않도록 속도를 방지하는 턱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삼가고 제어하고 방지해야 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시 119:9)

폴리스티두르(police tidur)

폴리스티두르(police tidur)라 하며, 그 의미는 '잠자는 경찰'이라는 뜻이다. 과속제어장치라고 문자적, 기계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딱딱한 어법보다는 풍자적이고 유머스럽기까지 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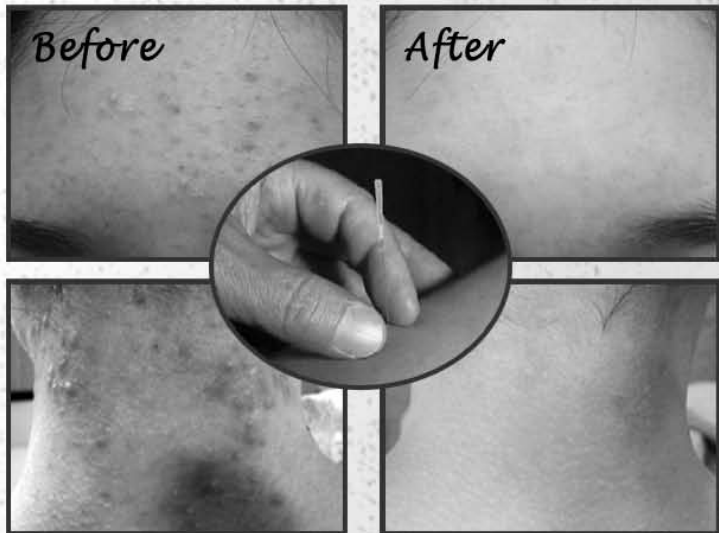
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경찰이 잠자는 듯 숨어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인 것 같다. 우리가 길을 달리다가 앞에 경찰차가 있으면 거의 본능적으로 속력을 줄인다. 마찬가지로, 폴리스티두

여드름 고민 해결!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T.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박종길 칼럼



박종길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감사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감사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에 대한 몇 가지 묵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는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르고, 아무리 작은 것을 받아도 깨달으면 더 큰 감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한 자루의 쯔불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는 스피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선택으로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감사할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겪은 고통과 역경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감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엄격한 한국의 문화는 감사를 표현하는 데 인색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닫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마치 센서가 감지하는 위치까지 나아가갈 때 열리는 자동문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늘의 창고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문은 감사함의 기도로 열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

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빌 4:6-7, 우리말성경) 염려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함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망이 꼭 막혀 나아가갈 길이 안 보일 때,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불평과 원망이 목까지 차서 마음이 화로 가득할 때, 잠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죽음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강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

다. 감사에 대한 표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표현될 때 더 큰 감사를 얻게 되고, 감사를 나눌 때 더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열 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회서신



이종환 목사
두나미스 미니스트리

의 아름다운 광택을 보려면 꺾아 내고 다듬어야 하듯 사람의 정직성도 끊임없는 자기 노력과 내적 수련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거룩과 정직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 요소가 거짓입니다. 그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함의 능력배양입니다. 한국교회를 포함한 한국사회의 치명적 병인 부정직을 오늘 내가 먼저 치유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위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을 보면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삶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월리암 딘 장군이 북한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어렵게 마련한 조그마한 종이쪽지에 그는 아들로 하여금 세상사는 지혜를 단 한마디의 단어로 써 놓았습시다. 딘 장군이 선택했던 한마디의 말은 ‘정직성’(integrity)이었습니다. 정직성이 없이는 어떤 지도자도 신뢰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도덕적 수준은 어떤 조직의 성장의 본질입니다. 고대 희랍 초기 소크라테스는 “위대함에 대한 첫 번째 열쇠는 속과 겉이 같은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직이란 건전한 도덕적 원리의 자질입니다. 보석

처럼 모든 죄와 악의 밑바탕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없는 삶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나다나엘 같이 속에 간교와 꾸밈이 없는 정직하고 착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과 학교에서 “착한 사람이 되라.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듣기 어렵습니다. 대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대학에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유능한 사람이 되라”고 모두들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 할 때만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입니다.

먼저 깨끗해져야 세상이 깨끗해진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어떤 사회도 그 시대 그 사회의 종교 이상 발전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도 그 교회의 지도자들 이상으로 발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윤리적 삶의 실천입니다. 정직이 힘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행복은 개인의 정직에서 시작합니다. 정직한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의 건강은 표식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이 시대에 정직한 사람이 보고 싶은 것은 오직 저만의 생각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칼럼



진승희 원장
나라여성한방병원

도 피부에 많은 관심을 쏟는다. 이제 피부과 대기실에 젊은 남성뿐 아니라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성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여자들의 경우 깨끗한 피부, 하얀 피부가 고민의 1순위로 남자의 경우 모공이 피부 고민의 1순위라는 설문결과가 있었다. 여자들의 경우 모공이 커진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

닌 여드름으로 고민을 하는 경우도 많다.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는 한번 생기면 모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는 혼자 되돌리기 쉽지 않다. 다음에 소개되는 블랙 헤드에 도움이 되는 천연팩으로 블랙 헤드를 예방하여 깨끗한 피부를 가꿔보자. 달걀흰자 팩=달걀흰자는 모공수축에 효과적이다. 달걀 흰

아름다운 얼굴 만들기

예전에 여드름이 있었던 사람, 한번 얼굴의 피부가 늘어났다가 줄어든 사람 예를들면 임신으로 체중이 증가했다가 다시 빠졌다거나, 살이 찘다가 다이어트로 살을 뺐거나 하면 없던 모공이 생겨 고민을 한다. 피부가 깨끗해도 눈에 보이는 모공으로 고민하고, 나이가 들면 이 커진 모공이 주변의 살을 쳐져 하여 입가의 팔자주름을 유발하기도 한다. 여자건, 남자건 얼굴이 잘생겨도 분화구 같은 모공이 움푹 파여 있다면 완소남, 완소녀라 불리기 힘들다. 완소남으로 불리는 배우준이나 지성과 같은 연예인들도 매끄러운 피부결과 작은 모공으로 여심을 자극한다. 때문인지 최근에는 남성들

지만 남자의 경우는 다량의 피지 분비와 잘못된 스킨케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자들에게는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다량의 피지가 분비되고, 피부관리에 관한 정확한 지식부족 때문으로 파악된다. 모공이 커지는 이유는 잘못된 세안에서부터 비롯된다. 1.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 후 이중 세안을 하지 않아 노폐물이 쌓여 모공이 커진다. 2. 세안시 비누로 피부를 세게 문지르면 피부탄력이 떨어져 모공이 늘어진다. 늘어진 모공은 모공의 크기를 더욱 크게 보이도록 한다. 모공이 큰 사람들의 또 다른 고민은 수분과 지성의 불균형으로 블랙헤드나 화이트 헤드가 많이 생겨 나이 들어 때

자를 분리하여 거품을 낸 후 밀가루를 소량 섞어 모공이 넓은 T존 부위나 코 주위에 바른다. 팩제가 굳어 피부가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 미온수로 닦아낸다. 흑설탕 팩=흑설탕은 피지 및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다. 흑설탕에 요구르트를 약간 섞어 농도를 알맞게 하여 T존 부위나 코 주위에 바른다. 팩제가 굳으면 미온수로 닦아낸다. 죽염 스크럽=죽염은 피지제거에 효과적이다. 세안 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죽염을 블랙헤드가 있는 부위에 살살문지른다. 소량의 우유와 섞어 문지르면 부드럽게 이용할 수 있다. 문의: 714. 626. 0003 웹사이트: www.naraclinic.com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본원은 최고의 교수진과 동영상 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수업이 가능하며, 수료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협동개혁 교단에서 목사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특 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한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한
-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사를 면제함

구비서류

-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협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 블랙앵거스 프라이머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 시내 ■ 장거리 ■ 귀국 ■ 사무실 ■ 창고이전 ■ 포장이사

행복 이삿짐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
항상 미소를... 항상 정성을... 항상 친절을...

작은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Tel. 323-733-2433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치과 보조사,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여름학기 속성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생,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넥, 건과류, 각종 공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등굴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외도 의뢰하면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le Ave, #1, Los Angeles, CA 90001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MR 박을 찾아주세요!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1.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2.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3.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4.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한달 은가족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금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40 한달 은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제임스 정 장로
EXECUTIVE DIRECTOR

Tel: 213.725.7217 세일즈 하실분 모집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폰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폰대학 (부속) 편강한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Value Windows & Doors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 20일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조경공사 랜드스캐핑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인조석, 자연석

213-909-5518

한국 ₩ ↔ \$ 미국

당일 동시 (교액 전문) 소액도 가능합니다

T. 213-388-4989

한국은행 ▶ 미국은행 송금서비스 가능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p> <p>TEL : 562-926-1023, 4691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p>	<p>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p> <p>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p>	 <p>국제개혁대학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p> <p>TEL : (213) 381-0081, FAX : (213) 381-001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p>
 <p>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p> <p>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p>	<p>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p> <p>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9월 13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p>	<p>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p> <p>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p>
 <p>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p> <p>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p> <p>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p>	 <p>캘리포니아 라노대학교 California university llano</p> <p>T: 714-490-0065 F: 714-333-4990 520N. Brookhurst St.Ste.120 Anaheim CA92801 www.californiauniversityllano.org</p>	<p>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p> <p>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p>
<p>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p> <p><장학금을 지급함></p> <p>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p>	<p>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p> <p>TEL : 213-440-0125 1325 12th Ave. LA CA 90019</p>	<p>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p> <p>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p>
 <p>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p> <p>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p>	<p>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p> <p>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p> <p>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p>	 <p>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p> <p>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p> <p>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p>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화번호.전화기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 맞는 플랜을 골라 쓰세요!
단, 9월 1일~9월 15일 가입자에 한함

많이 쓰지도 않는 집전화의 높은 기본료가 불안이라면?
Residential Economic Plan
패밀리 알뜰 플랜 \$4.99/월

- 미국 전화번호 1개+한국 전화번호 1개 제공!
- 수신 무제한 무료!
- 초저가 요금으로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이용가능!
미국, 캐나다 2센트/분, 한국 유선전화 2.6센트/분

Verizon AT & T
가정용전화 완전대체

한일통신(주) (주)한국통신 (주)KT가맹점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30일 환불보장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한인출입이 많은 매장을 보유하신 분 또는 활동적인 분을 사업자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213-784-1133 (동부시간 오후 1시~오후 9시)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유제한 플랜을 원한다면?
Global Unlimited Plan
글로벌 플랜 \$9.99/월, Tax포함
(*첫 3개월간, 이후 \$24.99/월)

- 로컬, 미국, 캐나다 정거리,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지금 가입하시면,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My Korea Number
마이 코리아 넘버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iTalkBB**
www.Korea.iTalkBB.com

가입문의 **1-800-872-2902** 1-800-875-8318 (고객지원)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30분(EST)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패밀리 알뜰 플랜 가입자에게는 월이용료 이외에 세금 및 기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글로벌 플랜과 글로벌 플랜은 프로모션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총 18개월 간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를 중지하시는 경우 \$8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할인 받으신 총금액을 환산해 부과됩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와 패밀리 알뜰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을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인문하고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최대** 규모, **최다** 차량 보유,
최신 장비 보유, **최고**의 서비스, **최저** 가격 보장"

북미에서 단일 딜러로 가장 큰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에쿠스 출시를 기념하여 기존 제네시스 리스하신 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제네시스 리스 리턴시 내셔야 하는 **DEPOSITION FEE(\$400)** 을 면제해 드리고, 재 리스시 **한달 할부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 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 pre-owned 소나타 제한)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9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쏘나타

(O.A.C & PLUS TAX T.D.O \$2,399/12KMILE)
LEXUS만큼이나 좋은 차, 불티 납니다.

\$199/3YR STK:031704



2011년도 최신형 제네시스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2,999/12K MILE)
대형 세단의 중후함을 느껴 보세요.

\$399/3YR STK:101312



2010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O.A.C & PLUS TAX, COMP. INCENTIVE T.D.O \$2,199/12KMILE)
스포츠 카의 최강자,
미래형 디자인과 힘을 느껴 보세요.

\$259/3YR STK:031622



2010 신형 엘란트라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1,999/12K MILE)
(목회자 특별 리스 해당 품목)
중소형 세단으로 연비 절감 효과

\$159/2YR STK:049539



8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

- | | |
|---|--|
| 2009 HYUNDAI ELANTRA BLUE STK P755456 \$14,990 | 2007 BMW 328I WHITE STK PZ70863 |
|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 P018925 \$28,900 | 2007 BMW 328XI BLACK STK PP31167 |
| 2009 HYUNDAI SANTA FE SILVER STK P253216 \$17,995 | 2006 CHEVY AVALANCHE BLUE STK P084373A |
| | 2010 CHEVY IMPALA SILVER STK P107055 |

〈 매니저가 원하는 중고차 세일 〉

- | | |
|---|--|
| 2009 CHEVY MALIBU BLUE STK P192398 | 008 HYUNDAI VERACRUZ WHITE STK P057661 |
| 2009 HONDA ACCORD WHITE STK P021316A | 2009 TOYOTA TACOMA WHITE STK P640770 |
| 2008 HYUNDAI ENTOURAGE GOLD STK P051414 |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
| 2010 HYUNDAI SONATA BEIGE STK P58116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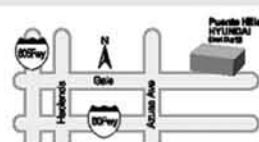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찰리 정 스티브 장 저스틴 길 제메인 존슨 지니 안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et you \$1,000. See dealer for details.